

왕곡마을 종합정비계획 용역 보고



고성군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군수 집무실에서 '왕곡마을 10개년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죽왕면 오봉리 왕곡마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접수

고성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받고 있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그동안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시 추적이 어렵고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으며, 사고가 날 경우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지 않아 피해 보상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2012년 1월 1일부터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 했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다. 단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등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하다.

오는 6월30일까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의무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숲길(등산로) 실태조사·운영관리

고성군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지역에 산재해 있는 30여개소의 숲길(등산로)에 대한 실태조사와 운영관리에 나선다.

숲길 실태조사와 관리는 GPS를 이용한 노선측량, 새로운 안내판 설치 대상지파악, 훼손지역, 숲길의 특징, 문화역사적유래, 사진, 이용빈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스토리텔링을 기록하게 된다.

녹색자원순환 홍보용 CD제작

고성군은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 자원화하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녹색자원순환을 위한 홍보용 CD를 제작해 보급한다.

주요 내용은 고성군 쓰레기 현 주소, 주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농업 및 해양쓰레기 배출요령, 고성군 쓰레기 처리시설 현황, 재활용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고성군 쓰레기 현주소'에는 고성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쓰레기 배출방법과 수거환경, 그리고 배출된 많은 쓰레기와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모습과 쓰레기 최종 처리장소인 고성군 환경자원 사업소를 소개할 예정이다.

“설악권 통합에 고성군은 제외해 달라”

고성군의회 건의안 의결, 관련 부처 전달 ... “통합요구는 군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

고성군의회가 지난 21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악권 4개 시·군 통합 반대 건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장, 강원도지사 등 관련 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홍봉선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서 군의회는 “속초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설악권 4개시·군 통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평화통일의 염원을 말살시키고, 역사성을 무시한 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했다.

군의회는 “고성군은 세계유일의 '분단국의 분단 군'으로서 반세기를 넘게 분단의 설움과 아픔을 간직한 민족 단절의 현장"이라며 “전 국민 모두가 남·북고성군이 하나로 통합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오는 시점에, 통합논의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을 저버린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이 없는 설악권으로의 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또 “우리군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낙후된 생활을 감수하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변방에서 각광 받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꿈과 희망을 안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설악권 4개시·군 통합요구는 고성군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군의회는 특히 “옛 고성의 명성을 되찾고자 통일의 그 날만을 기다리는 고성군민과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를 약화

시키는 그 어떠한 요구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95년 정부의 도농 통합 추진 때도 고성군은 북고성이 있는 만큼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도농통합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추진에도 일관된 정책추진을 요구하며, 이번 시·군 통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제220회 임시회를 열고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을 의결했다. 최광호 기자



지난 21일 열린 고성군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봉선 군의원이 '설악권 4개 시·군 통합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신창현 후보 “결정에 승복”

2시 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선관위는 또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고, 23일 오후 5시에는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추첨에 이어 모든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선거를 위한 ‘메니페스토 서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동기 ‘천문대 건립’ 추진

민주통합당 이동기 예비후보는 설악권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속초 노학동 일원에 ‘천문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보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설악권은 가족 단위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위한 새로운 레저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이 확대되고, 자연환경과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이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훈석 과학기술분야 ‘우수의원’ 선정

민주통합당 송훈석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선정한 2011년도 과학기술분야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500만 과학기술인의 대표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박상대)가 국회 과학기술 관련 7개 상임위원회 161명 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모두 15명의 의원만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28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자로 뛰었던 신창현 후보(사진)가 경선 참가자에서 제외된 이후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결정에 승복하며, 그동안 격려하고 성원해주신 속초·고성·양양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신후보는 “앞으로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낙후된 설악권의 경제와 정치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분발하겠다”고 했다.

속초시선관위 입후보 안내 설명회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